

행복한 성당, 하와이 한인성당

하와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Taegon Oratory

주임신부 : 권지훈(베드로)

사목회장 : 김성연(야고보)

사 제 관 : (808) 422-1040사 무 실 : (808) 422-1010

◦ 성당 주소 : 511 Main St, Honolulu, HI 96818 ◦ 성당 이메일 : <u>honolulukcc@gmail.com</u> ◦ 홈페이지: https://standrewkimhawaii.org

제2275호

2025년 11월 16일(다해)

미사 안내 화, 수, 금 : 오전 10:30

목 : 오후 7:00

(성체 강복: 매달 첫 번째 목요일

7시 미사 중)

토 : 오후 4:00

일 : 오전 06:30, 10:30

오후 4:00 (St. Peter & Paul 성당,

매월 셋째 주 마우이 공동체 오후

2:30)

연령회

병자성사, 봉성체를 희망하시거나 임종 환자 또는 망자 발생시에는 신속히 연령회로 연락 바랍니다. - 연령회장: 김미아 헬레나 (808) 291-7811



평

일

연중 제33주일

▶ 1독서 : 말라키 예언서 3,19-20ㄴ

▶ 화답송 :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 러 주님이 오신다.

▶ 2독서 : 테살로니카 2서 3.7-12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다. ◉

▶ 복음 : 루카 21.5-19

① 12월 21일(일)은 Peter & Paul 성당 파견 미사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 ② 12월 21일(일)은 마우이 공동체 미사(오후 2:30)가 있습니다. (St. Anthony Church - 1627 Mill St. Wailuku, HI 96793)
- ③ 고해성사는 미사 전후 고해소에서 있습니다.
- ④ 미사 참석시 명찰 착용 부탁드립니다.
- ⑤ 사제연수 관계로 11월 18일~21일까지 평일 미사는 없습니다.
- ⑥ 11월 27일(Thanksgiving Day) 평일 미사는 없습니다.
- ① 매월 셋째 주 '화해와 일치 주간' (11월 16일~22일)
- ⑧ 매월 넷째 주 11월 23일(일) '한끼 나눔'
- ③ 하와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Taegon Oratory) 방문을 환영합니다.



사목공지

※ 교육분과 공지

교리교육 주제



사목위원회

구역 및 단체

• 11월 16일: 천주의 성모 복되신 동정 마리아

• 11월 23일: 종합 교리

시간: 오전 9시, 장소: 예비자 교리실

교리에 관심있는 신자분은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① 연령회 모임

일시: 11월 16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성당

② 성모회 모임

일시: 11월 23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새신자 교실

③ 교육분과 모임

일시: 11월 23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컨퍼런스 룸

④ 하와이카이 구역 모임

일시: 11월 23일(일) 오후 6시 문의: 김 글라라 349-2654

⑤ 알라모아나 구역 모임

일시: 11월 29일(토) 오후 6시 문의: 김 엠마 228-0088

⑥ 와이파후 구역 모임

일시: 11월 29일(토) 오후 6시 문의: 안 마르첼라 391-8347

장소: 새신자 교리실

※ 과달루페 성지순례자 모집

일시: 2026년 4월 26일(일) ~ 5월 1일(목)

인원: 선착순 35명

비용: \$2,230 / 2인 1실 (독실 \$440 추가)

신청: 박 로렌 엘리사벳 (전화: 382-9221, Laurenpak33@gmail.com)

기타공지

※ 주일학교 및 자모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주일학교 및 자모회 기금 마련을 위한 장터 시장이 열립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일시: 11월 22일(토) 4시 미사 후, 11월 23일(일) 교중미사 후

판매품목: 빵, 깻잎, 고추지, 양배추 김치, 냉우동 샐러드 및 소스, 된장,

우리 성당 로고가 들어간 가방 및 텀블러



헌금

11월 15/16일 Catholic Campaign for Human Development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11월 8/9일: \$7,604				지난주	
	주일헌금	교무금	2차헌금	특별헌금	기사 참례자 수	총 329명
	\$3,523	\$2,560	\$1,286	\$235		

Business Insurance Service, Inc.

보험 컨설팅, 상가·집·자동차 보험 사도요한 김형섭 / 599-9810. 592-5011

New York Life

은퇴연금/학자금/투자/재무설계 차 그레고리오 808-226-3344

브라이언 오토 바디샵

자동차바디수리·보험처리/친절상담 홍 프란치스코 / 836-5887

Ginzawon (긴자원)

Korean B.B.Q (Waikiki) 문의: 김태영 안토니오 808-220-0768 808-922-3387

뷰티터치 (BEAUTY TOUCH)

한국 화장품 종합 백화점 문의: 임영림 안나 Tel: 808-271-4802

묘지매매

묘지: Korean Memorial Garden Lot 39 Section B Sites 1,2,3,4 (판매) 가격 절충 가능 문의: 심소영 / 808-798-5100

※ 미사: 미사란 무엇인가? (총정리편)

"미사란 무엇인가?" 그리고 "보편교회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미사의 요소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 질문들을 토대로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동안 나눠본 이야기들 중에서 핵심이 무엇이었는지 되새겨 봅시다.

- 1. "미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의 4가지 키워드 : 기념 제사, 사랑의 잔치, 만남, 거룩함의 시간.
 - 1) 미사는 하느님의 구원을 지금, 이 순간 삶 속에서 기념하는 제사이다.
 - 2) 미사는 파스카 신비를 통해 거대한 사랑이 전달되는 잔치이다.
 - 3) 미사는 하느님과 우리, 그리고 공동체원들이 서로 만나는 만남의 장이다.
 - 4) 미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성화되는 시간이다.



알아둡시다

- 2. 가톨릭 교회 교리에서 설명하는 미사
 - 1) 미사는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제사이다.
 - 2) 미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잔치이다.
 - 3) 미사는 교회 안에서의 환호로 구성되는 예식이다.
 - 4) 미사는 거룩한 표징으로 구성된 예식이다.
 - 5) 미사는 하느님의 행위와 우리의 행위로 구성된 거룩한 제사이다.
- 3. 보편교회에서 중시하는 미사의 요소들
 - 1) 공동체 : 전례 행위는 사적인 행위가 아니라 교회, 곧 거룩한 백성인 교회의 예식 거행이다(전례헌장 26항).
 - 2) 신자들의 능동적인 참여 : 어머니인 교회는 모든 신자가 전례 거행에 의식적이고 능동적이고 완전한 참여를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능동적인 참여를 위하여 최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전례헌장 14항).
 - 3) 침묵: 거룩한 침묵은 거행의 한 부분이므로 제때에 지켜야 한다(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45항).

대전교구 윤진우 세례자 요한 신부

※ 연중 제33주일 강론 요약본

교회의 전례력 마지막 시기를 지내며 우리는 다시금 종말, 곧 하느님께서 역사를 완성하시는 순간을 묵상합니다. 종말이라는 말은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 지만, 오늘 말씀은 그 반대입니다. 종말은 의로운 이들에게 기쁨이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 주는 때입니다.

복음에서 예수님은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도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전쟁, 지진, 박해 등 종말의 징표를 말씀하시지만, 이 어서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인내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는 확고한 희망의 약속을 주십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하느님은 흔들리지 않는 분이라는 선언입니다.

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종말이 가깝다는 생각에 일을 멈추고 공동체를 혼란스럽 게 한 이들을 꾸짖으며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종말을 기다 린다는 이유로 지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를 믿기 때문에 지금을 더 충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가정에서의 사랑. 일터의 책임. 공동체 안의 봉사 등 일상의 성실함이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사람들이 종말을 공포로만 여기지만. 성경은 악에게는 끝이지만 의로운 이들에게 는 새로운 시작이라 말합니다. 종말은 하느님의 정의가 드러나는 순간이며. 하느 님과의 일치가 완성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종말은 의로운 이들에게 해방과 기쁨의 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종말을 기다려야 할까요? 첫째. 평범한 일상을 성실히 살 아가야 합니다. 둘째, 혼란 속에서도 하느님을 붙드는 믿음의 중심을 지켜야 합니 다. 셋째, 고통의 순간을 복음의 증언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넷째, 하느님의 때 를 믿고 흔들리지 않는 인내로 살아야 합니다.

종말 신앙은 우리를 겁주는 것이 아니라 희망으로 지금을 살게 하는 신앙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고 희망으로 기다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더 성실히, 더 사랑으로, 더 믿음으로 지금을 살아가며,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그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권지훈 베드로 신부

ARBOR Financial Group NML# 236669

심소영: 주택융자담당 Cel:(808)798-5100 Email:sharis@arborfg.com

최 니콜 부동산

Locations, LLC Cell 225-5566 www.ChoiHawaii.com nicole.choi@locationshawaii.com

광고 문의

사무실 808-422-1010

A'ALA Meat & Seafood Inc

문의전화 808-452-8473 서삼렬 사무엘 samseo@aalameatandseafood.com

메디케어 보험

(65세 이상 및 장애인) 한국어, 영어 가능(심 크리스티나) Shari Shim / 798-5100

보나 최 부동산

■ 문의 전화 808-636-5217 bona.choi@cbpacific.com Coldwell Banker P.P.